

서기 2000년 연도 표기 대책위 구성

우리협회는 3월 11일 긴박한 문제로 떠올라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2000년 표기 수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 구성은 2000년 표기 수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시간적으로 앞으로 3년이 남지 않았다는 촉박함이 있는데다 민간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표기 수정과 관련, 이미 한국전산원과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도 추진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공공부문에 대한 솔루션 개발 방향등을 설정하는 것이며, 협회는 실질적인 솔루션 제공과 이에 대한 용역대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공급자에게 공히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업계가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배경 및 필요성

- 서기 2000년 연도표기문제는 정부, 공공기관, 업체등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에게 관련되는 광범위한 문제임.
- 그러나 각 기관, 업체등은 2000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주체가 없이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
- 특히, SI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업체는 2000년 문제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정립과 이에 따른 고객의 현황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서비스의 용역대가 기준, 체계등에 관한 방안이 필요
- 이러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계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SI업체에서는 자사 그룹내 시스템과 공공부문, 금융부문등의 유저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도표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분석중인 상태
- 정보통신업계는 2000년 문제의 솔루션 제공시 고객과의 용역대가 또는 업 그레이드시 시스템 도입계약 관련사항등에 대해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들은 대부분 서기 2000년 연도표기문제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에서 “컴퓨터 2000년 문제대책반”을 구성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나 민간부문은 추진주체가 없음.

국내·외 현황

- 서기 2000년 연도표기문제를 업계 공동차원의 대응하는 추진주체가 없음
- '97. 2. 20(목) 협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15개 업체의 2000년 대책 현황 파악, SI업체들의 업계 공동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

대책 프로젝트의 효율적 진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2000년 문제의 본질과 대응책”을 발표하였고 타 기관, 업체에서도 활발히 2000년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

추진경과

해외 현황

□ 미 국

-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산하에 “Year 2000 Interagency Committee”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2000년 문제 해결책을 상호, 조정, 교환하고 있으며 모범적 해결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음
- 정부 부처로는 NIST, DISA, Air, Force, Army, Navy, NISMC(Nava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Center), 국방성 등에서 2000년 문제 전담반을 운영
- NIST, ANSI, ISO와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 2000년 문제해결에 관한 표준화 추진중
- 위와는 별도로 각 주정부에서도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수행
- 이들 기관은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홈페이지들을 서로 연결,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음

□ 일 본

- '96. 5월 정보서비스산업협회는 “서기 2000년 문제위원회”를 발족하여 구체적인 대책 검토 시작
 - '96. 6월 2,500개 기업과 500개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실시
- NEC정보서비스는 하드웨어 임대등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해결을 위한 신 서비스를 '96. 10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한바 있음.
- 노무라연구소에서 2000년 문제의 본질, 2000년

- '97. 2월 국내·외 2000년 대응 현황 자료 수집 및 번역
- '97. 2월 정보통신 15개업체 실무자 회의
 - 각 그룹 SM 및 SI업체등을 비롯한 정보통신업계 대응 현황 파악
- '97. 3월 국내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
 - 위원회 집행부 선임, 조직구성, 주요 활동방향 등 논의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방향

위원회 구성

- 임원을 위원으로 하고 실무자를 분과위원으로 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 협회에서 위원회 운영 지원하고 실제 활동은 업계 실무자로 함.
- 분과위원회를 조사·연구/홍보·협력 2개분과로 구성
-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추천하여 선임
 - 위원장 : 윤재철 상무 (삼성데이터시스템(주))
 - 분과위원장 :
 - 조사·연구분과(황태인 상무 : 쌍용정보통신(주))
 - 홍보·협력분과(주기성 이사 : 두산정보통신(주))
- 정보통신업계 2000년 대책 위원회(위원, 분과위원) 참가 신청접수(3월중)

주요 기능

구 분		역 할	비 고
위 원 회		○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 활동방향, 분과지원(재정, 활동등)	
분과위원회	홍보·협력	○ 유저그룹(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에 2000년 문제 및 새로운 서비스로서의 인식 확산 세미나 - 정부 공공기관, 민간부문 대응현황 및 방향 등 - 2000년 문제의 중대성 및 대응방향 ○ 정보통신업계 상호 협력사항 추진	
	조사·연구	○ 연도표기문제 현황 조사, 분석 - 유저그룹, 정보통신업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기타 필요한 조사·분석 ○ 표준 용역대가기준(안) 연구 ○ 정보통신업계의 업종별(SI, 컴퓨터제조, SW 등) 해결방향 제시 등	필요시 학계등에 연구용역

위원회 주요 활동

- 공공부문, 민간부문 유저에 대한 2000년 문제 인식확산에 중점(세미나등)
 - 정부, 공공기관 2000년 문제 대응 현황
 - 유저의 2000년 문제의 중대성, 2000년 문제 해결 방법론
 - 2000년 문제 해결 성공사례
 -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 민간부문 유저에 대한 2000년 인식 및 대응 현황조사
- 연도표기 솔루션 표준용역대가 기준(안) 마련 및 업계 공동 활용방안 제시
- 2000년 문제 솔루션 서비스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의 정착 활동
- HW업체에 대한 협력 및 대응 활동

- 분과위원장 주도하에 각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수립(3월말)

기 타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협회의 성립예산과 참여사의 공동분담
- 행정 및 관리는 협회에서 지원

추진일정('97년)

- 97. 3월 : 대책위원회 구성
- 97. 4~ 5월 : 현황 조사
- 97. 5~11월 : 세미나 개최
- 97. 4~ 8월 : 솔루션 표준 용역대가기준(안) 마련